

나달, 4년 만에 US오픈 테니스대회 정상

남자 단식 결승서 세계랭킹 32위 케빈 앤더슨 3-0으로 완파... 통산 16번째 메이저 우승

올 시즌 부활을 선언한 라파엘 나달(31·스페인·세계랭킹 1위)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나달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32위 케빈 앤더슨(31·남아프리카공화국)을 3-0(6-3 6-3 6-4)으로 완파했다.

이번은 없었다. 나달은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결승에 진출한 앤더슨을 상대로 2시간 27분 만에 승리를 일궈냈다.

나달이 US오픈에서 정상에 선 것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개인 통산 세 번째다. 개인 통산 16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한 나달은 19회로 역대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로저 페더러(36·스위스·세계랭킹 3위)를 바짝 추격했다.

랭킹 포인트 2000점을 추가한 나달은 세계랭킹 1위 자리도 굳게 지켰다.

부상이 겹치면서 2014년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메이저대회 4강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나달은 올해 4개 메이저대회 중 3개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하며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뽐냈다.

나달은 올해 호주오픈에서 준우승했고, 프랑스오픈과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했다. 나달이 한 시즌에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일군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서브에이스에서 1-10으로 크게 밀렸지만, 나달은 끈질긴 랠리로 상대의 실책을 유도

도해 승리를 챙겼다.

나달의 실책은 11개에 불과한 반면 앤더슨은 무려 40개의 실책을 쏟아냈다.

1세트 게임스코어 3-3으로 맞선 상황에서 앤더슨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한 나달은 여세를 몰아 1세트를 가져왔다.

나달은 2세트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키다가 게임 스코어 3-2로 앞선 상황에서 앤더슨의 서브게임을 가져오며 흐름을 가져왔다.

나달은 상대의 서브게임인 3세트 첫 게임을 따내며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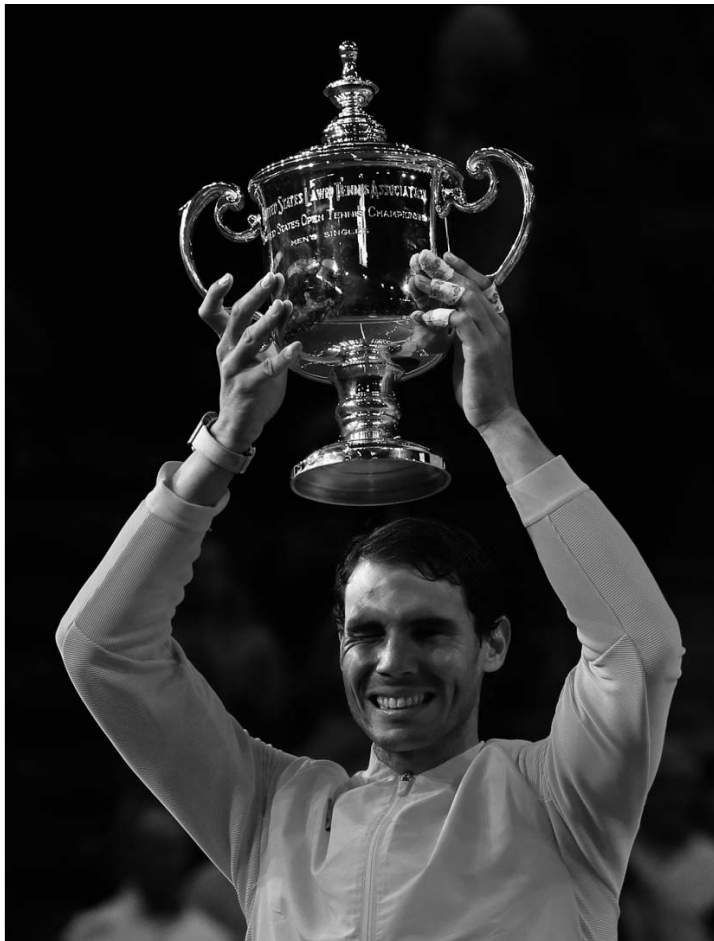
앤더슨이 자신의 서브게임을 잘 지키면서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나달도 서브게임을 넘겨주지 않고 그대로 우승을 확정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시스템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US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 오른 앤더슨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나달에 무릎을 꿇었다.

나달은 "최근 몇 년 동안 부상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어떤 순간에는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며 "올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해였다"며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김민근기자

라파엘 나달(31·스페인·세계랭킹 1위)이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32위 케빈 앤더슨(31·남아프리카공화국)을 3-0(6-3 6-3 6-4)으로 꺾고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추신수, 양키스와 홈경기 2타점 2루타 기록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타점 2루타를 직렬하며 분전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다.

추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일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양키스전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추신수는 시즌 18번째 2루타를 날리면서 타격감을 조율했다.

텍사스는 장단 10안타를 날렸지만, 홈런 4방을 포함해 18개의 안타를 몰아친 양키스에 7-16으로 졌다.

추신수는 1회말 1사 후 상대 2루수 스티빙 카스트로의 실책으로 출루했다. 그러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더 이상 진루하지 못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3회 1루수 앞 땅볼을 친 추신수는 팀이 3-9로 뒤진 4회 2사 3루 상황에서는 파울팁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6회 1사 1, 2루의 찬스에서 핫스윙 삼진을 당했다.

텍사스가 4-13으로 끌려가던 8회 1사 1, 2루의 찬스에서 상대 구원 댈린 베탄시스를 상대한 추신수는 5구째 시속 99마일(약 159km)짜리 직구를 노려져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후속타자가 모두 삼진으로 물러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추신수의 2루타로 2점을 만회했던 텍사스는 9회 3점을 헌납하면서 양키스에 승기를 내줬다.

/김민근기자

신태용 감독, "10월 유럽원정 평가전서 나의 축구 보여줄 것"

"잘 준비해 희망 보여주겠다" 각오 다져

"원정 평가전에서 신태용 축구를 보여주겠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이뤄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각오를 다졌다.

신태용 감독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신사옥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기념회폐 기입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감독은 "최종예선 2차전의 경우 결과를 중요했다. 무조건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로 인해 많은 팬들이 실망하셨다. 이제 잘 준비해서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신태용호는 오는 10월 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9일 후에는 프랑스 칸에서 튀니지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까지 9개월의 시간이 남은 한국은 원정 평가전을 통해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다.

신 감독은 "최종예선 때문에 K리그가 많

은 희생을 했다. 대표팀도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 원정 평가전에서는 해외파 위주로 팀을 꾸릴 계획이다. 도와준 만큼 배려하겠다. 이청용과 이승우 모두 체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선수 선발에 대해서 "신태용 축구를 하려면 공격에서 볼을 많이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조하겠다. 패스와 볼 터치에서 좋은 선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기념회폐 기입식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축구국가대표 신태용 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용수 감독, J리그 FC도쿄 사령탑 후보 물망

최용수 감독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FC도쿄 사령탑으로 물망에 올랐다.

일본 J리그는 11일 "최 감독이 다음 시즌 도쿄 감독 후보군에 포함됐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지휘했던 펠릭스 마가트 감독도 후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FC도쿄는 올 시즌 J리그 18팀 중 10위에 머무르며 부진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0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시노다 요시유키 감독을 경질하고 남은 시즌을 안마 다카요시 코치 체제로 전환했다.

이 매체는 "최 감독은 FC서울에서 2012년 K리그 우승 2013년에는 아시아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최용수 감독은 지난 6월 장수 추닝(중국) 감독직에서 물러나 쉬고 있다. 최근엔 K리그 클래식 강원FC 감독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 감독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나설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쿄는 구단은 오는 10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할 생각이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